

# True Peace

天國 10年  
天曆 05  
2022년 양력 6월

효정누리 FESTIVAL







#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기성 천심원장 / 신한국 천의원장, HJ천주천보수련원 원장



사랑하는 천일국지도자 및 축복가정 여러분!

온 인류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혼란과 고통 속에 2년 이상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참어머님께서는 어느 때보다 식구들의 건강과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시며 정성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해서 HJ천원을 보여주는 천국으로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HJ천주천보수련원 정문에는 천부모지천보원 만백성지부흥원으로 간판을 붙여 누구든지 찾아와서 천운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찾아올 수 있는 소문난 명소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셨습니다. 천보원, 사랑나무 광장, 부흥마당, 부흥백화점, 역사의 거리, 효정카페와 한원집, 한원천운길과 한원천운봉, 효정나무 가는 길 등 많은 정성으로 환경을 정비하시어 VIP들도 찾아와서 감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육과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일국지도자와 축복가정여러분!

천일국 진성덕황제로서 영육계를 치리하시는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체성령이신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되는 것이요. 천보역사와 하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되어 승리하는 방법으로 천심원 특별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원단을 맞이하면서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16,000여명이 신통일한국개문 범국민기도회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단에 맞추어 참어머님의 축도를 받은 후 새벽 3시까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해 어머님께서는 오대양 육대주를 넘나드시면서 입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몸으로 승리를 향해 전진하셨고 마침내 우리는 어머님을 모시고 비전 2020을 승리하고 천일국 안착과 하늘부모님 성회 큰 우산 아래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일 효정연에서 ‘정성을 전쟁처럼 활동을 전쟁처럼’ 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후 이어진 천심원특별정성이 2022년 5월 12일에는 5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천심원 특별정성을 명받은 조만웅 박규남 박내천 원로목사님 가정은 벌써 1,000일을 넘어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다. 참부모님 성수무강과 천지인참부모님을 중심한 정오정착과 3대권 안착을 위해,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안착 비전 2027 승리를 위해 부름받으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천일국지도자와 축복가정들이 흥진님 효진님 대모님 존전에 엎드려 지난 날의 과오를 회개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천심원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되면 실체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천심원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믿고 천심원 특별정성에 동참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일국지도자 및 축복가정여러분!

참부모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천심원 섭리를 중심으로 3일노정을 견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지난 4월 3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내가 천심원섭리를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말씀하신 후 HJ천주천보수련원 분원을 세우시면서 천심원장과 분원장을 임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천심원 섭리와 함께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안착 비전 2027 승리를 향해 전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시는 독생녀 참어머님 존전에 충효의 도리를 다하고 말로만이 아닌 실적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갑니다. 

## CONTENTS



### 권두언

- 02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기성 천심원장 / 신한국 천의원장

### 하늘부모님성회 효정누리 페스티벌

- 09 하늘부모님성회 효정누리 페스티벌  
12 참부모님의 사랑을 체휼하는  
천정궁 성지순례 이벤트  
14 천일국 성지 보드게임 해본리 마블

### 협회창립 68주년 기념 역사 정리

- 16 하늘부모님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협회창립 68주년 기념 간추린 역사

### 신통일한국 평화포럼

- 20 하늘부모님성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  
1기 총결산

### 리틀엔젤스예술단 창단 60주년 기념

- 22 리틀엔젤스예술단, 창단 60주년 기념  
공연 “천사들의 비상 (飛上)”

### 참부모님 말씀

- 04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은  
해방과 석방권 위에서  
평화경 제2편 10장  
08 영원히 왕엄마로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늘부모님성회 효정누리 페스티벌  
25 워싱턴타임즈 창간 배경과  
주요 편집 방향  
참부모경 제9편 2장 3절



### 워싱턴타임즈 창립 40주년 기념

- 28 워싱턴타임즈 창립 40주년 기념  
축하메시지  
30 자유, 가정, 신앙 :  
워싱턴타임즈 40주년  
탐 맥데빗 워싱턴타임즈 재단 이사장

### 2022 효정 철쭉축제

- 32 '2022 효정 철쭉축제' 보고  
33 '2022 효정 철쭉 축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현장특집

- 36 신일본 제2지구 주최  
'효정 환영축제 2022'  
40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효정청소년오케스트라 봄 콘서트  
지휘자 데이비드 이튼  
42 분단 최초  
'휴전선 DMZ 횡단 승마 피스로드'  
완주



##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은 해방과 석방권 위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50주년 기념식  
2004년 5월 1일 | 한국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

존경하는 전·현직 수반, 세계 각국에서 오신 귀빈과 대한민국의 내외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 식전을 빛내 주시기 위해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본인은 1954년 5월 1일 서울 북학동의 초라한 '세대문집'에서 몇 명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하늘 앞에 심각한 기도를 올렸던 것이 엇그제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 191개국에 선교부를 두고 일취월장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놓고 이것을 하늘의 기적이 아니라고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일찍이 16세의 피 끓는 청년 시절에 하늘의 소명을 받고 비장한 각오로 출발한 하늘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실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수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탕감의 고비 고비마다 피와 땀과 눈물이 고이는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세워 놓은 아들의 비참상을 지켜보시며 가슴 아

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피눈물을 속으로만 삼키며 살아왔던 외로운 사나이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여 년 동안 하늘로부터 받은 진리를 가르치고 살아온 본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총정리한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은 해방과 석방권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하나님과 영계

귀빈 여러분! 본인이 평생을 두고 가르쳐 온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연하게 머리로만 알거나 수학공식을 외우듯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심장과 뱃속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요, 어떤 속성들을 갖고 계시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소원하신 이상세계는 어떤 세계이며, 언제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선택권 밖에 엄연히 존재하는 사후의 세계를 정확히 알아야 현세에서 우리의 삶을 놓고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산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중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인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며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분은 무형으로 존재하십니다. 크다고 하면 무한대로 크신 분이요, 작다고 하면 무한히 작은 존재이십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자신 있게 확실히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하나님과 인류의 해방·석방을 위한 한평생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본인이 이와 같은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찾아 인류 구도의 길을 걸어온 지 벌써 80여 년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나온 불쌍한 사나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실존성을 증

명하고 가르쳐 나온 길이었습니다.

인류가 청맹과니가 되어 한 치 앞을 못 보면서도 하늘의 진리를 놓고는 모두가 미분명한 철학자요 신학자가 되어 하나님의 가슴에 한을 심어 나온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위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참사랑이 없었더라면 복귀섭리역사는 애당초 출발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런 하나님의 내정적 심정의 세계를 알고 나서 얼마나 많은 날을 눈물과 통곡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해 놓고 영원한 참사랑의 대상 자리에 세우려 했던 인간 조상이 타락의 길로 떨어진 후 지난 수천 수만년의 탕감복귀노정을 섭리해 나오신 하나님의 한에 맺힌 모습을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까? 불쌍하고 억울한 하나님이었요, 분통이 터지고 한이 넘치는 하나님의 노정이었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도를 하고 계신 참부모님.



2004년 5월 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행사장 전경.

영광의 아버지요 대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 왕좌와 부모의 자리를 원수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엄연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도 죽었다고 조롱하고 천대해도 인고의 길을 걸으시며 인간 스스로 깨우치는 그날만을 기다려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위하는 참사랑을 토대로 하여 영원을 두고 창조의 섭리를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식이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우주를 폭파해 버리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지전능의 권한으로 온 세계와 사탄까지도 한꺼번에 심판하고 깨부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고독단신으로 온갖 수모와 참소를 감수하시면서 영어 살이를 자청해 오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 전 인류를 가르쳐 온 희생적 노정

여러분!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한 날이라도 진정한 동정과 참회의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악마의 핏줄을 받아 사탄의 주구가 되어 있는 인류를 놓고 혀를 깨물고 참으시며 해방과 석방의 한 날만을 고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못 본 척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까?

따라서 레버턴 문의 생애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심각한 삶의 역사였습니다. 사탄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로서 개인완성의 길을 걸어야 했으며,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네 명이나 어린 나이에 영계에 보내야 했고, 남은 자식들마저도 광야에 내던진 채 걸어야 할 숙명적 탕감복귀의 노정이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해방·석방시켜 드리고 그 토대 위에 인류를 해방·석방시켜 주기 위한 구세주요 참부모의 천명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돈·권세·명예나 부귀가 필요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엄동설한 눈비를 맞고 끼니를 굶어 가면서도 아침저녁, 밤과 낮을 잇고 팔십여 평생 오로지 외길, 하늘길을 달려온 사나이의 생애였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를 토하는 감옥의 고문실에서도 구해 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식의 비참상을 보시고 오열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피눈물을 흘렸던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길을 걸어 온 본인의 삶이었습니다.

부모와 고향산천을 버린 채 위하는 참사랑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일관한 생애, 천명을 따라 생명을 걸고 하늘길을 걸어야 했던 사나이로서의 외길, 결코 절충을 모르고 추호도 비겁하지 않게 살아온 본인의 생애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한없이 불쌍하고 처량한 일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천운이 지구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80여 년간 본인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탕감복귀노정이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참사랑의 불길

21세기의 벽두인 2001년에는 ‘하나님 왕권즉위식’을 봉정해 올림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해방과 석방의 날을 찾아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주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터 위에 금년 3월 23일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 상원빌딩에서 세계평화왕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의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미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레버런 문을 ‘세계평화왕’으로 추대하는 등극식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인간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유명한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고, 동양의 최고 예언서 격암유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레버런 문은 천명을 받아 숙명적 책임을 완수한 인류의 참부모요, 평화의 왕으로 현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계 도처에서 레버런 문을 따라 이 땅 위에 평화왕국을 창건하는 대열에 참가하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죄 없는 민족과 국토가 양분된 한반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유혈 분쟁지가 되어 버린 중동지역에서도 이제는 레버런 문의 도움이 아니면 평화를 기대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전 지구성을 덮고 있는 참사랑운동

금년 2004년 4월 10일을 기해 본인은

‘천사세계의 석방’, ‘가인 아벨의 석방’, 더 나아가서는 ‘천주·천지·천지인부모 석방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일을 기하여는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은 해방과 석방권 위에서’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전체·전반·전권·전능의 권한을 실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영적인 조건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해방·석방과 더불어 이제는 이 땅 위에 명실상부한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이 설립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창립 50주년을 맞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는 천운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레버런 문이 가르쳐 준 대로 첫째 하나님의 실존을 피부로 느끼며 살고, 둘째 영계의 실상을 확실히 알아서 지상계의 삶을 영원한 영계의 삶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살고, 셋째 양심을 스승으로 삼고 하나님처럼, 부모처럼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벌써 천국인이 된 것입니다.

참사랑의 불길은 이제 21세기의 봄바람을 타고 지구성 전체로 산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원수 국가 사람들과의 교차축복결혼이 젊은이들 간에 새로운 신앙으로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습니다. 물·공기·빛은 틈이 있는 곳이면 무조건 흐르듯 이제 참사랑운동은 전 지구성을 덮으며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받고 이 땅 위에 평화의 왕국을 정착시킬 젊은 지성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고명하신 세계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세워야 하는 천일국 주인들의 대열에 서서 주면 줄수록 커지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참사랑의 혁명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말씀은 평화경 제2편 10장에서 발췌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고문이나 형벌도 본인의 하늘길을 좌절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에 걸친 감옥살이도 자식들을 찾아 나선 참부모의 길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싸늘한 감방에 앉아 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을 바라보면서 ‘저 물방울이 언젠가는 바위를 뚫듯이 내 눈에서 떨어지는 이 뜨거운 눈물이 기필코 얼어 붙은 하나님의 한 서린 가슴을 녹이고 해방·석방시킬 그날이 오리라!’라고 다짐하고 맹세하며 살아온 사나이의 생애입니다. 원수를 친자식 이상 사랑하는 실천적 삶으로 60억 인류를 가르쳐 나온 희생적 노정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은 일찍이 1970년대 초 미국에 들어가서 ‘나는 불을 끄는 소방수로,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의사로 이곳에 왔노라!’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오늘 인류는 이제 새

# 영원히 왕엄마로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늘부모님성회 효정누리 페스티벌  
천일국 10년 천력 4월 8일 (양 2022.5.8) | HJ글로벌아트센터

사랑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 2세, 3세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참어머님이요」 그래요. 참어머니예요.

하늘섭리의 완성과 인류의 소원,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6천년 만에 초림 독생녀로 탄생하여 참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요. 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히 한 분 되신 왕엄마입니다. 여러분, “왕엄마 사랑해요”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해봐요. 「왕엄마 사랑해요!」 나도 너무나 사랑해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요. 2대, 3대, 4대, 5대, 영원히 왕엄마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잊지 말아요, 왕엄마. 





# 하늘부모님성회 효정누리 페스티벌

천일국 10년 천력 4월 8일(양 2022. 6. 8.)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전국에서 모인 3,200명과 양방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5만여 명에 축복가정 3대권이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효정누리 페스티벌이 진행됐다.

이번 효정누리 페스티벌은 하늘부모님 성회를 선포한 2주년이 되는 날이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혼 62주년 기념행사에 일환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자 2년 전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천주적 가나안 7년 노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부모님'으로 안착하신 토대 위에 '하늘부모님성회'를 선포한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인류의 본연에 부모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님께서는 참부모님 성혼기념일을 중심으로 '하늘부모님의 날'과 '참부모의 날'을 합쳐 섭리에 새로운 봄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하늘부모님을 인류의 본연의 부모에 자리에 세우신 '어버이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라며 환영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생일을 맞은 14명에 새 식구에서부터 축복가정, 성화 어린이까지 3대권이 문연아님과 식구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효정봉정 시간에는 영육계 참가정을 대표해 문연아님과 참가정 3세권을 대표한 문신출·문지우 가정, 문신흥·문유메 가정이 꽃바구니 봉정, 문신진님과 2세, 3세 성화어린이들에 꽃바구니를 봉정, 중고등학생을 대표해 김재화, 김보민 학생을 비롯한 10명에 성화학생에 꽃바구니 봉정, 청년학생을 대표해 UPA 생도 10명에 꽃바구니 봉정이 진행됐다. 이어 효정누리 페스티벌에 특별 초청된 장애가정과 한부모 가정, 3대권 모범가정에 꽃다발 봉정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예물봉정은 전 세계 천일국지도자들과 축복가정을 대표해 정원주 총재비서실장과 윤영호 세계본부장에 예물 봉정, 1세권을 대표한 신통일한국국민연합 원로회 조만웅, 윤정로 공동회장에 예물봉정, 2세권을 대표한 신한국의 공동대륙회장 주진태, 황보국, 유경득, 이상재, 박영배 회장, 이현영 UPF 회장에 예물봉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물은 3세권을 대표해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김철우 사관생도와 나카타 나에, 이치카와 리온 YSP 청년 대표가 예물을 봉정해 올렸다.

이어 천지인참부모님에 말씀이 있었다. 참어머님께서 영원히 왕엄마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다는 말씀을 내려주셨다.

참부모님을 보좌에 모시고 인류의 부모이신 참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마음을 담아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제창하며 효정의 심정을 올려드린 식구들. 이어진 천일국 동요의 시간에는 참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시간으로 나이를 초월해 모두가 환한 미소로 참부모님 앞에 자녀되는 시간이었다.

효정스피치는 강원도 원주교회 김지희 어린이가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 참어머님께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하였다.

훈독해요는 최지선 스토리텔러가 참부모님께서 성혼을 통해 하늘부모님을 어버이로 모실 수 있게 되었음을 참어머님 생애동화와 참부모님 자서전을 통해 전했다.

효정이야기 마당에서는 1회부터 7회까지 공연되었던 연극 중 가장 인기가 많고 앙코르 요청이 있었던 신심봉사와 효녀 심청을 새롭게 각색해 공연이 진행되었다. 신심청전은 아버지를 위한 효심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심청의 충심에 하늘부모님도 감동하여 심청이를 수선화에 태워 지상으로 보내고 다시 아버지와 재회하여 마음에 봉사했던 심봉사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얘기다. 심 봉사가 눈을 뜨게 된 장면은 참어머님께서 하늘부모님과 하늘부모님의 나라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삶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의미를 떠올리게 하여 많은 식구들에게 감동을 전하였다.

이어 펼쳐진 축하공연 시간에는 YSP 공연을 비롯해, 비보이 애니메이션 크루, 오은영 미술사, 가수 설운도의 무대가 이어졌다. 참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효정동요 효정의 마음과 YSP청년들의 바람개비를 통해 참부모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표현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어 김재현 YSP 세계수석부회장, 김동연 신한국 YSP회장, 변중호, 김성주, 양권일, 정국진, 이수원 회장에 역만세 삼창이 이어졌다.

금번 효정누리 페스티벌을 통해 축복가정 3대권이 참부모님을 모신가운데 효정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 1 보좌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 참여머님.
- 2 참가정의 신진님과 축복가정 2세 3세 성화어린이들이 참여머님께 꽃다발 봉정을 한 후,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3 참부모님께 예물봉정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4 효정스피치를 한 강원도 원주교회 김지희 어린이
- 5 참여머님 생애동화를 훈독하고 있는 최지선 스토리텔러.
- 6 효정이야기마당, 신(神)심청전을 공연하는 장면.
- 7 참여머님을 모시고 YSP 청년들과 효정누리 율동팀과 함께 바람개비를 흔들며 피날레를 장식한 후, 다 같이 역만세를 외치고 있다.



# 참부모님의 사랑을 체휼하는 천정궁 성지순례 이벤트

아름다운 천원단지, 그 중에서도 천정궁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다. 참아버님께서는 천정궁의 의미를 특별하게 설명하셨다. 하늘 천(天)은 두 사람(二人)이고, '바를 정(正)'은 '머무를 지(止)' 위에 하나(一)를 덮었다. '궁(宮)'은 집 아래에 '법 려(冪)'가 있다. 그래서 천정궁은 타락성과 죄악에 이끌려 살아 온 자신의 삶을 멈추고 하늘 법도에 따라 올바르게 살게 하는 바른 궁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바로 잡아주는 하늘나라 출발의 궁이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참사랑과 진리말씀을 온 인류가 함께 성찰하며 상속받는 평화의 궁전이다. 2006년 6월 13일 천주평화의 왕 천정궁 입궁대관식으로 개문한 후 수많은 섭리적 행사와 교육과 집회가 있었다.

이번 효정누리 페스티벌에 참여한 식구들을 위해 3대권이 함께 천정궁을 비롯한 주요 성지를 순례하게 해주신 참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자들 표정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 천정궁에 가보자!

2022년 5월 8일 하늘부모님성회 효정누리 페스티벌이 끝난 시점에 HJ글로벌아트센터 1층 동문에는 셔틀버스 탑승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 날 셔틀버스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행되었고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했다. 셔틀버스는 철쭉이 활짝 핀 길을 따라 천정궁으로 향했다.

참가자들은 천정궁에 도착하여 특별히 마련된 포토존에서 성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본관동으로 이동 한 후, 경배를 하고 기도 정성을 들었다. 그 후, 이벤트존에서 아이들을 위한 풍선아트, 타투 스티커, 같이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이동한 쉼터존에서는 음료와 다과 나눔이 있었다.

5월 어버이날을 맞아 효정누리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천정궁 성지순례 이벤트를 통해 참가자들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참사랑을 체휼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 효정누리 페스티벌 2부를 채운 다양한 이벤트들

하늘부모님성회 효정누리 페스티벌 1부 행사가 끝나고, 2부 프로그램에서는 천정궁 성지순례를 하는 '천정궁에 가보자!'를 비롯하여, 유초등부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에어바운스 '효정아 놀자',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효정이의 미술 솜씨'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되었다. 효정누리 페스티벌 3000여 명의 현장참석자들이 참여했다. 







# 천일국 성지 보드게임 헤븐리 마블

헤븐리 마블은 2021년 여름, 선학역사편찬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제1회 선학역사편찬원 아카데미에 참석한 교육생들의 '생애노정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천일국 성지 보드게임'이다. 2개월 간 선학역사편찬원에서 진행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통일가의 미래세대들에게 참부모님의 생애를 잘 전달할까?'라는 고민을 한 끝에 게임을 개발하게 되었다.

원래 모든 땅은 하늘부모님의 창조물이며 하늘부모님께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부모님은 모든 것을 잃어 버리셨다. 그러다가 1960년 참부모님의 성혼식 이후 '성지'를 정하시므로써 비로소 하늘부모님께 땅을 되찾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성지'는 참부모님께서 타락한 세계를 하늘부모님의 나라로 복귀하시기 위한 발판으로 택정한 성스러운 장소이다.

1965년 참부모님께서 세계를 순방하시며 전 세계 40개국의 120곳에 성지를 택정하시므로써 성지 택정이 본격화되었다. 성지는 그 지역의 하늘편 선민을 지켜 줄 수 있는 땅이며 상징적인 하늘부모님의 영토이다. 참아버님께서는 "성지를 선택하는 것은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사람과 땅과 만물을 복귀할 수 있는 땅을 갖추고, 사람을 찾아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초점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성지의 중요성과 의미를 보다 쉽게 교육

'헤븐리 마블'은 이러한 성지의 중요성과 의미를 보다 쉽게 교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헤븐리 마블'은 국민 보드게임인 '부루마블'을 모티브로 제작하였지만 나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돈'의 개념이 아니라 '정성 포인트'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부루마블 게임이 돈으로 주고 도시와 건물들을 사







기획중인 아카데미 학생들



서 '소유'하는 개념이라면, 해브리 마블은 '정성'을 기반으로 성지 관리자가 되는 개념으로 개발하였다. 정성을 쌓아 성지의 관리자가 되어 성지가 더욱 발전되고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용어와 문화들을 게임 속에 녹여냈다. 성지 관리자가 되면 부루마블 처럼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3단계 즉, '소생, 장성,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 '3'의 의미를 게임 규칙에 적용하여 특별함을 더했다. 황금카드 속에서는 '참부모님 지시', '인사이동', '웃놀이 대회' 등 교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사랑 나눠주기', '옆 사람 칭찬하기' 등의 미션을 통해 경쟁보다는 화동이 중심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성지 관리증서'에는 성지 사진과 성지 택정일, 주

소, 성지와 관련된 참부모님 말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성지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성지 관련 퀴즈를 통해 게임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해브리 마블'은 전국 교회에 2개씩 보급되었고, 식구님들과 여러 단체에서 구매 요청에 의해 2022년 1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한 결과 300개 이상 주문을 달성하여 펀딩에 참여한 식구들을 위해 수정·보완하여 추가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한 추가물량은 2022년 3월말 각 가정에 배송되었고, 4월 2일부터 17일까지 펀딩 성공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선학역사편찬원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고, '위드 코로나' 시기에 다시 시작될 여러 교육에 활용되기를 바라며 개발된 '해브리 마블'을 통해서 성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 하늘부모님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협회창립 68주년 기념 간추린 역사

천일국 10년 천력 5월 1일(양력 2022. 6. 30.)은 하늘부모님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이 창립 68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를 기념하여 지금까지의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보려 한다.

## 참부모님의 공식노정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인류의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로서 이 땅에 현현하시어 사탄 주권의 지상·천상지옥을 하늘부모님 주권의 지상·천상천국으로 재창조하는 섭리를 진두지휘 해오셨다. 하늘부모님 아래 하나의 가족, 하나의 세계를 천주평화통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세우기 위해 공식노정을 밟아오셨다.

먼저, 참부모님께서는 하늘부모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 나오셨다. 지금까지의 찾아온 말씀을 참어머님께서는 천성경, 참부모경, 평화경으로 재정리하여 훈독의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셨다.

다음으로 참부모님께서는 성혼 이후 직계가족인 참가정과 타락한 혈통으로부터 직접 찾아 복귀하신 축복가정을 중심으로 하늘부모님 아래 하나의 가족, 하나의 세계를 친히 찾아 나오셨다. 슬하에 직계자녀 14남매를 낳아 기르시고 축복하셨

고, 손자, 손녀도 축복하여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기틀을 참가정으로 세우셨다.

또한 타락한 혈통의 가인세계 인류에게도 축복을 허락하여 축복가정이 되어 지상천상천국의 백성으로 입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3가정 이래, 33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3만 가정, 36만 가정, 4000만 가정, 3억 6천만 가정, 4억 가정 등 인류 전체가 조건적으로 축복을 받고 완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 받았다. 또한 참부모님께서는 영계의 4000억쌍 이상의 축복가정에게도 HJ천주천보수련원 절대선령 역사를 통해 해원하고 축복을 받게 하여 하늘부모님의 선의 혈통을 계승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참부모님께서는 하늘부모님의 심정, 이상, 가치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교육, 스포츠 등 사회전반을 복귀하는 활동을 추구해 오셨다. 말씀을 내리시고, 축복을 주시어 인류가 세상 곳곳에서 하늘부모님의 대신자가 되어 세상을 복귀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지도하여 주셨다.

## 한국협회

1954년 5월 1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림메시아를 위한 기독교 기반을 모두 상실한 가운데 참아버님께서는 소수의 제자





들과 눈물로 통곡하는 가운데서 서울 북학동의 세대문집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을 내거렸다. 이것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이하 협회)의 시작이다. 만약 기독교가 1945년 참아버님과 하나되었더라면 그 이후로 어떤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반대하는 자리로 떨어지자 참아버님께서는 술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셔야 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시켜 기독교를 대신하여 세계적인 탕감복귀의 기반을 세우셔야 했다.

초창기에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자대학 등 지식인 청년들이 대거 입교하는 등 협회 발전의 발판을 빠르게 다져 나왔다. 그러던 와중 협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려는 기독교와 정부 당국의 핍박에 따라 협회는 참아버님과 유효원, 김원필, 유효민, 유효영 등 교회 간부들이 연행되는 74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참아버님께서는 10월 4일 서울지방법원 결실공판에서 무죄 언도를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출감하셨으며, 이후 10월 7일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71-3으로 본부교회를 이전하여 본격적인 협회 부흥기를 이끄셨다. 지속적인 기독교와 세상의 이단정죄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전세계 200여 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적 종교로 급성장하게 된 것이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가정연합은 이처럼 시작은 극히 미약하였다. 손이 닿을 정도의 낮은 처마, 드나들 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인격 완성용 낮은 대문, 반 평 가량의 안방과 한 평 못되는 초막 같은 사랑방에서 출발했다. 당시 드나드는 사람도 불과 예닐곱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참아버님은 소수의 식구들 앞에서 항상 기도정성과 사자후를 통하는 성령충만한 말씀으로 용맹정진하며 은사의 대역사를 일으키셨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가정연합은 초막같은 세대문집을 본부로 하여 출발하였으나 이후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유대교-기독교-가정연합으로 이어지는 주류 종교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가정연합을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변혁시켜 왔다.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명칭의 의의

첫 공식명칭이던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다음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에서 밝히신 명칭의 의의에 대한 말씀이다.

‘세계기독교’는 동서고금에 걸친 기독교 전부를 의미하고, ‘통일’은 앞으로 나아갈 목적성, 그리고 ‘신령’은 부자관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영육계의 조화를 암시한 표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영계를 배경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통일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나의 이상이었습니다. 통일은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은 둘이 모인 것이지만 통일이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139.)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사명과 역할

참아버님께서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였던 1954년, 3년여의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이 한국 땅에서 세계 기독교를 통일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묶어 전 인류를 하나님께 복귀시켜 드리겠다는 원대한 뜻을 담은 신령협회를 창설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문선명선생 말씀선집」 제494권, 158.)라고 말씀

- 1 1960년 4월 11일(음력 3. 16.) 성혼식이 진행됐다. 이 사진은 성혼식 때 한국 전통 혼례복을 입으신 참부모님의 모습이다. 이 성혼식을 통해 참부모가 이 땅에 현현했고, 이후 참부모의 주례로 축복결혼식이 거행됐으며 참가정 운동이 확산됐다.
- 2 1992년 8월 25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3만 가정 국제합동축복결혼식 전경.
- 3 참아버님과 최원복 선생을 모시고 찍은 1961년 이화여대 졸업사진. 초창기 이대를 비롯해 많은 지식인들과 청년식구들이 입교했다.
- 4 서울 장충단공원이 있는 북학동에 판잣집을 세내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간판을 걸었다. 이것이 협회의 시작이었다. 일명 ‘북학동 세대문집’이라고 부른다.



하셨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자, 인류의 근본부모로 하자, 심정의 근원된 아버지를 찾자는 것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하자는 것이냐? 조상을 찾자 이거예요. 여기에서 귀결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에서 바라는 것 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부모를 가졌기 때문에, 거짓부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고, 그러한 역사적인 실정, 세계적인 실정으로 맺어진 이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기원 밑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상대적 입장의 인류의 참된 부모를 찾자는 거예요. 여기가 통일교회가 가야 할 최후의 목적지요,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통일교회 교인들의 심정생활이 아니겠느냐?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 61권, 25.)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하늘부모님이 소망하시는 조국 창건을 위한 사명과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종교를 넘어 서서 사상을 규합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될 나라를 세우는 기반을 닦아야 했던 것이다.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창립배경

참부모님께서는 1954년 5월 1일 협회 창립 이후 공식적으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명칭을 1997년 4월초까지 사용하셨다. 다만, 공식섭리의 진전에 따라 참부모님께서는 섭리의 중심기구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오셨다. 먼저 참부모님께서는 1993년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선포하기까지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평화청년연합 등을 창설하시며 세계평화가정연합을 창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참부모님께서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통해 타락한 인간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방, 석방하시고 참부모를 영접하여 교회권 축복을 받게 하셨다. 참부모님을 중심한 3가정, 33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3만 가정 축복 이후 참부모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참부모 선포를 하

기에 이른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김일성 북한 주석 등으로부터 실체굴복을 받아 천주적 가나안 복귀노정에서 아벨로 승리하시고 인류 앞에 참부모로 공식 선포하신 것이다.

인류역사 이래 최초로 참부모가 이 땅에 현현하였기 때문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시대의 종교권 기반 운동에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인류 대가족 생활 기반 운동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1997년 4월 10일 기해교단 명칭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공식 변경하였고, 전 세계 185개국에서 워싱턴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언론을 통해 가정연합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공표하였다.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명칭의 의의

참부모님께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명칭에 포함된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의 다섯 개념의 의미를 강조하여 설명하셨다. 먼저 세계는 사실상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를 총합한 천주를 의미한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세계 개념이 섭리의 중심기구로 역할해 온 세계적 기반의 기독교권을 배경으로 한 차원이라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천주적 차원에서 축복가정들이 연합이 된 평화와 통일권을 목표로 한 개념으로 더 깊이가 있다.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사명과 역할

참부모님께서는 모든 가정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종족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라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어 일체 이상을 완성해야 천국이 도래한다고 강조하신다.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300권, 229.)

지상천국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참부모님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세계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각 가정이 세계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





연합 시대를 맞아 참부모님을 모시고 인류를 축복가정으로 찾아 세우고 사탄 혈통을 타고 이어져온 원죄와 타락성을 종식시키고,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적 차원에서 축복중심가정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시대를 맞아 순결과 참가정운동, 남북 통일운동, 세계평화를 위한 UN갱신운동(초종교초국가평화의회, UPF창설 등), NGO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교회의 간판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하나님의 시대경륜에 따라 혁신하는 일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 하늘부모님성회 시대 선포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간혹 말씀하셨고, 참아버님 성화 이후에 참어머님께서는 하나님을 인류의 부모이신 하늘부모님으로 모셔야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다. 참어머님께서는 2013년 1월 7일 신년하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제는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바꿉니다. ‘헤븐리 페어런트(Heavenly Parent)입니다. 영어로 부드럽고, 한국말로도 의미가 있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늘부모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이 돼야 합니다. 그것부터 바뀌요. (2013년 신년하례회 말씀, 2013. 1. 7. 천정궁)”

2013년 2월 10일부터 참하나님의 날을 ‘참하늘부모님의 날’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4년 1월 1일 원단 기도회 때 참어머님께서는 2020년까지의 표어로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주인의 되자.’라고 정해주셨다.

참부모님께서는 2020년 5월 8일 ‘하늘부모님성회 시대’를 선포하셨다.

“하늘이 여러분 축복가정들을 사랑하사 이러한 선물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하늘부모님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참부모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계·종교계·재계·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부모님성회’를 발표합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헤븐리 페어런트 홀리 커뮤니티(Heavenly Parent Holy Community)’입니다.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흔 60주년 기념 특별집회 말씀, 2020. 5. 8. HJ천주천보수련원)”

오늘날 하늘부모님의 시대경륜은 하늘부모님의 실체이신 참부모님을 통한 하늘부모님성회 시대의 출발이다. 하늘부모님성회 시대는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의 시대를 말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부모님으로 계시하는 하나님과 하늘부모님의 실체이신 참부모님을 영육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늘부모님의 꿈이요 이상인 천일국 안착을 실현하는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세상은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여야 할 것이다. 대재난이 자연에 의한 것이든 인간에 의한 것이든 인간의, 인간에 의한 질서로 세워진다면 다시 대재난의 팬데믹을 불러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오직 해결책은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가정들을 확대시키고 선의 환경과 질서를 바로 세워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공동체 지향의 궁극적인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정이어야 충분한 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1954년 5월 3일, 협회 창립 이틀 뒤 현판식 기념사진.

2 1963년 5월 1일 협회창립기념일에 기도하시는 참부모님.

3 1995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대회 전경.

4 2020년 5월 8일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흔 60주년 기념 특별집회에서 ‘하늘부모님성회 시대’를 선포하시는 참어머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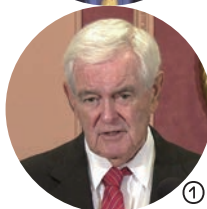


# 하늘부모님성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 1기 총결산

평화애원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된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은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신통일한국론 교육을 비롯해 통일을 위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접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었다. 신통일한국을 염원하는 폭포수 같은 특강들과 평화공연이 어우러진 평화포럼은 지속적인 대내외 교육을 통해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확인하고 확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신통일한국의 길”을 주제로 펼쳐진 제1회 평화포럼에서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평화포럼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 격주로 진행될 이 평화포럼은 신통일한국의 이론적 토대요 열개가 되는 신통일한국론을 중심으로 평화수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포럼으로써,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와 싱크탱크 2022 포럼의 이론적 근간을 확립하고 이념적 사상적 교육을 통해 신통일한국의 비전의 의식을 고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매회 거의 빠짐없이 신통일한국론 총강을 강의한 효정학술재단 진성배 이사장은 진정한 평화란 평화본질주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주의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고 말하며, 애천 애인 애국의 이념과 공생공영공의주의가 새 시대를 이끄는 대안적인 비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1기 교육기간 동안 총 76회의 특강이 있었으며, 가장 특강을 많이 한 강사는



18회를 기록한 진성배 효정학술재단 이사장이다.

평화포럼의 특강의 연사로 초청된 사람들은 국내 저명한 학자뿐만 아니라 해외의 저명인사들도 있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미대사(제1회 평화포럼 특강)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는 것이며 특히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입니다.”고 말하며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함께 해결해가야 하는 일임을 피력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협상특사(제2회 평화포럼 특강)는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코자하는 의지를 갖고 살아왔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안보 보장,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정상화는 평화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드맵이라 주장했다.

알렉산드로 만수로프 존스홉킨스 대학교 한국학 교수(제3회 평화포럼 특강)는 “북한의 실세와 변 ①화의 전망”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뉴트 킹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제5회 평화포럼 특강)은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한국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







표는 또 다른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학자 총재님께서 북한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북한을 대화에 참여시킬 방안을 모색하며, 북한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고자 노력하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라고 말하며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회 다방면의 주제로 초청자를 달리하며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평화포럼의 운영에 변주를 꾀했다. 한국의 5개 권역 UPF와 신일본 가정연합이 중심이 되어 준비되기도 했으며, 제18회 평화포럼에는 여성연합 창립 30주년을 맞아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꾸려지기도 했다. 연령별 대상을 달리해 원로회 주관,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제19회 평화포럼은 신한국 UPF를 중심으로, 제20회 평화포럼은 세계일보와 세계평화언론인연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제4회 평화포럼에서는 평화토론이 처음 시도됐고, 총평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2022년 12월 30일 진행된 10회 평화포럼은 “신통일한국 평화포럼 연말결산 토크 콘서트”로 특별하게 진행됐다. 평화공연과 축하시낭송, 평화담회 등으로 그간의 활동의 매듭을 짓고 나아갔다.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은 평화축제, 평화누리, 평화포럼으로 이어지는 하늘부모님성회 예배혁신의 결과물이었다. 참석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는 등 평화애원 교육으로서의 체계를 잡

아나갔다. 처음 오전 9시부터 오후3시 30분까지 당일교육(6-7시간)으로 격주로 진행되던 평화포럼은, 11회 이후로는 오전교육(3-4시간)으로 매주 진행됐다. 단, 한반도 평화서밋과 천주성혼 62주년 기념행사 준비기간인 2022년 2월 한 달과 4월의 2주간은 교육기간에서 제외됐다. 신통일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과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에 따라 세부 강의 주제에는 변화를 주어 매번 새로움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강 사이사이에 평화 공연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켜 강의에 집중할 수 있게 일정을 구성했으며, 평화 공연에는 리틀엔젤스예술단을 비롯해 백두한라예술단, 성악가, 퓨전 국악밴드 등 여러 예술인들이 함께 했다. 또한 현장 참석과 양방향 참석, 온라인 생중계 등으로 참석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천일국 9년 천력 7월 14일(양 2021. 8. 21.) 시작된 하늘부모님성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이 천일국 10년 천력 4월 6일(양 2022. 6. 6.) 제20회를 기해 1기를 마감했다. 한 달 간의 자체 분석과 보완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 2기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 1 (위로부터) 윤영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 조셉 디트리니 전 미 국무부 대북협상특사, 알렉산드로 만수르프 존스홉킨스 대학교 한국학 교수, 뉴트 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 2 제4회 평화포럼 평화토론 장면. 이때 처음으로 평화토론이 시도 됐고, 평화토론은 평화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이후 몇 차례 더 진행되었다.
- 3 2021년 12월 30일 진행된 특집 신통일한국 평화포럼 연말결산 토크 콘서트. 그간의 교육을 매듭짓는 시간이었다.
- 4 제18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은 창립30주년을 기념해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문훈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이 인사말씀을 전했으며, 이날은 효정 문화원이 아니라 천원궁천원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됐다.



# 리틀엔젤스예술단, 창단 60주년 기념공연 “천사들의 비상 (飛上)”



리틀엔젤스예술단(단장 정임순, 예술감독 배정혜) 창단 60주년 기념공연 <천사들의 비상>이 5월 28일(토) 유니버설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2022년 리틀엔젤스예술단은 60주년을 맞이하여 ‘예술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양한 레파토리, 새로운 무대영상, 국악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기념 공연은 지난 60년간 세계에서 찬사를 받아온 부채춤, 시집가는 날, 강강수월래, 꼭두각시 등 리틀엔젤스의 대표작 7편과 더불어 2018년 초빙되어 예술감독으로 재임중인 배정혜감독의 ‘궁’, ‘화검’, ‘바라다’, ‘설날아침’ 등 신작4편, 한예종 명예교수 겸 장고연주가 김덕수교수가 연출한 ‘장고놀이’, 9~12세 작은반 단원들의 가야금병창, 그리고 피날레 ‘합창’공연까지 60년사를 반추하며 기념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올해 12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창단 초기인 1965년부터 1976년까지 지속되었던 해외투어의 악사(연주자)들의 라이브 연주를 부활







시켜 이번 공연에 7작품을 라이브 연주로 진행하는 점이다.

이번 공연을 위해 연주를 하는 국악창작그룹 ‘양상블 시나위’는 2020년 대한민국예술대전 국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등 이미 국내외 실력을 인정받으며 여러 음반발표와 활발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룹으로 기존의 녹음음악보다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음악적 요소를 추가, 보다 입체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덕수 연출은 이번 연주의 장고 연주 및 음악 감독의 역할까지 감수하면서 음악의 전체적인 방향과 초창기 리틀엔젤스 공연의 음악적 본질과 독창성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을 맡은 김덕수 교수는 “‘양상블 시나위’의 일부 연주자들은 리틀엔젤스예술단 창단 후 초창기 해외투어를 같이 하던 공연단(악사와 연희자)의 자제들로서 이번에 함께 공연한다는 것은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작업”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세기를 거쳐 명인이 된 대가와 앞으로 다가올 세기를 책임질 미래의 대가들이 리틀엔젤스를 매개로 함께할 이들의 합주는 리틀엔젤스의 역사에서 기대할만한 음악적 성과로 가능될 것이다.

무대 연출에 있어서도 한 폭의 풍경화처럼 섬세하고 정교한 무대 작화막을 사용하던 전통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영상을 도입하여 무대 메커니즘에도 새로운 변화를 주어 관객들은 간결하고 탄탄한 클래식식의 전통과, 응축과 호흡, 해학으로 대표되는 신무용의 자유로움, 그리고 한국 고유 음악의 신명, 리듬을 보여주는 다이나믹한 타악 합주를 통해 전통과 변화, 다양성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62년 5월 5일 창단한 리틀엔젤스예술단은 초중등 단원들로 구성된 한국전통예술단으로 세계 60여 개국을 순방하며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려왔다. 한국문화의 글로벌 위상을 높인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4회 수상하며 ‘한류의 원조’라는 평을 받음과 동시에 ‘평양 공연(1998)’, ‘6.25전쟁 60주년 기념 UN참전 22개국 순회공연(2010~2012)’ 등 문화예술로 평화와 화합의 장을 마련해 ‘평화의 천사’로 알려져 왔다. 또한 초중등 어린이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예술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왔다. 





# 워싱턴타임즈 창립 40주년 기념



참부모님께서는 1982년 5월 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종합일간신문 워싱턴타임즈를 창간하셨다.

워싱턴타임즈는 좌경 진보주의의 공세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보수언론을 지향하였다.

워싱턴타임즈는 진보언론의 대표적인 워싱턴포스트와 함께

워싱턴 지역의 양대 일간지로서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한 논평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특히 1992년 4월 12일 김일성 주석과 단독 인터뷰를 하는 등

많은 특종으로 주목받았다. 그리고 워싱턴타임즈 자매지로

1985년 종합월간지 <월드 앤 아이>와 시사주간지 <인사이트>를 창간하셨다.







## 세계언론인회의와 언론매체 창설 워싱턴타임즈 창간 배경과 주요 편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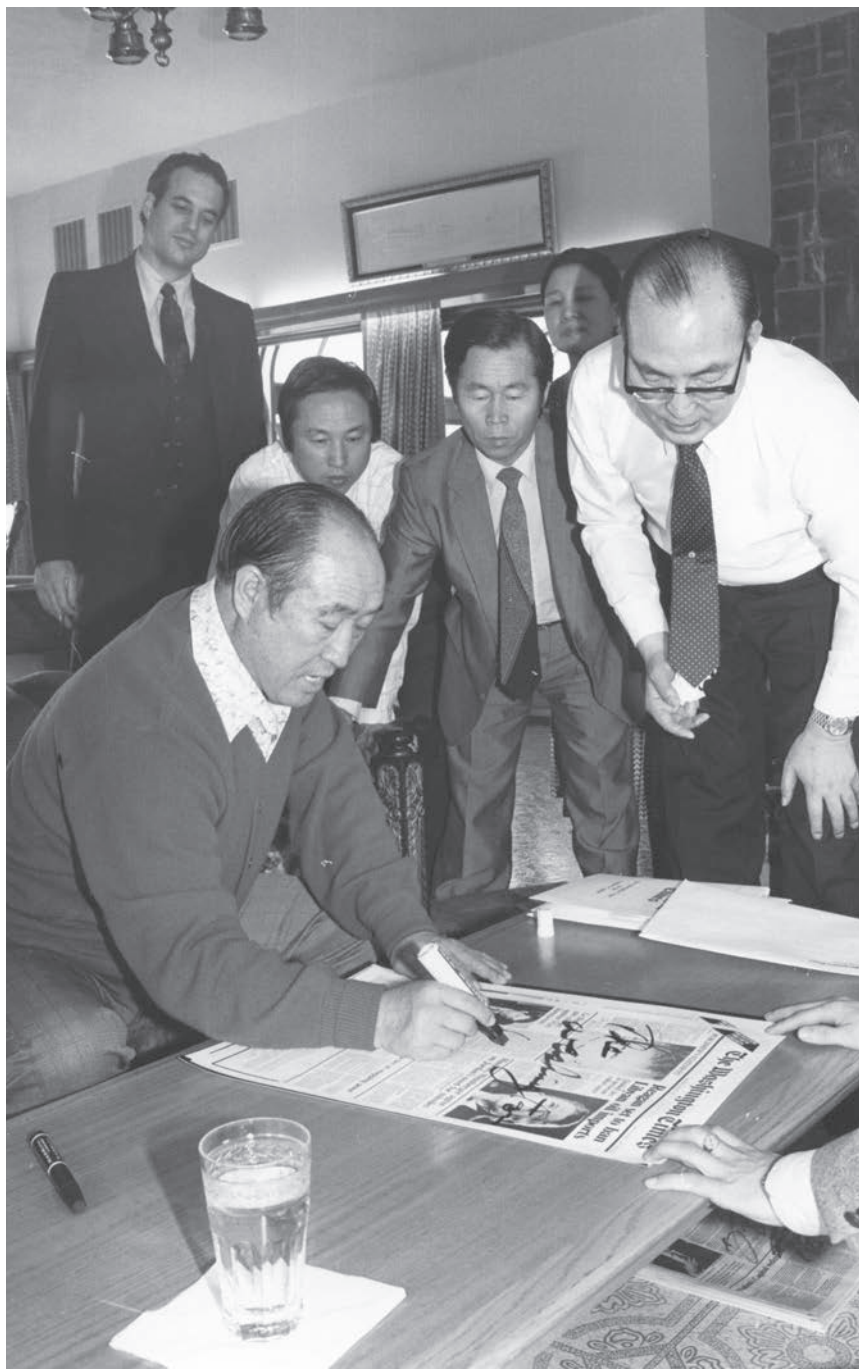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마비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아버님은 세계 종말시대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남이 생각하지 않는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타임즈를 만든 것입니다. 워싱턴DC에 있는 단 하나의 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좌익사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신문을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이 무엇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재벌들이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연합해서 신문사를 만들었지만 실패하고 말았



습니다. 매달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워싱턴DC에서 진보적인 물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보수적 사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 1천700여 개의 신문이 있었지만 보수지, 하나님 편에 선 신문은 단 하나 워싱턴타임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동서남북 사방에서 매일같이 새까만 밤중인 세계에 그들만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판국인데, 아닌 밤중에 보수의 등대가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워싱턴타임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앞날을 위해





1982년 5월 17일에 발간된 <워싱턴타임즈> 창간호에 기념사인을 하시는 참아버님.

서 정당들을 교육하고 지도자들을 교육한 것입니다. 참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도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건국의 전통을 새롭게 세워야 하고, 이 나라의 국민이 충성하는 것 이상 충성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인 내가 한국에 대해서 애국하는 이상의 애국심을 이 나라에 심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출범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부터 7년 기간에 하늘은 세계를 수습해서 메시아권 세계로 진출해야 되는데 사탄이 세계를 다 망쳐놓았습니다. 한국을 갈라놓고, 독일을 갈라놓고, 전 세계를 둘로 썬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탄 편이 우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투쟁한 대표자가 아버님입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깃발을 날리고 소련과 위성국가에 제동을 건 것입니

다. 소련이 그렇게 무너진 것은 고르바초프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중심삼고 아버님이 워싱턴타임즈를 만들고 반공체제를 강화하여 세계적으로 제동을 가함으로써 소련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워싱턴타임즈는 가정 파탄을 방지하고 도의적인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편집에서도 ‘가정’이라는 특별 페이지를 만들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통일교회는 워싱턴DC에서 세계적인 축복결혼 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희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교 무대나 정치 무대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이 통일교회의 가정운동 앞에는 머리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빈민은 빈민대로,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바람이 휩쓸어 태풍권 내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과거사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찾아와 새싹이 나올 수 있는 시대를 맞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타임즈가 미국을 살리는 데에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언론인들을 비롯해 그 누가 반대하더라도 앞으로 제2의 헌법 개정을 통해 건국사상을 시정해야 됩니다. 헌법을 중심삼고 미국 국민이 하나 안 돼 있습니다. 그것 이상의 새로운 청교도 정신을 중심삼고 천국 백성의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을 떠나서는 그 일을 할 수 없겠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해야 됩니다.

<월드 앤 아이>의 내용은 일반 신문 기자들이 쓴 내용과 다릅니다. <월드 앤 아이>는 기사를 쓸 경우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신문기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방대한 지식을 통해서 ‘아시아의 상황은 이렇고, 아프리카의 상황은 이렇고, 미국의 상황은 이렇고, 유럽의 상황은 이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된다.’라고 언론계를 미래 추구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지만 해가 지



남에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학자들이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낸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정책 방면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이 대학 도서관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 인류 앞에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것을 즉각적으로 발표해서 모든 지식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연구자료는 만민의 것입니다. 특정한 학교의 도서관 구석에만 보관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1985년 11월 국제과학통일회의 때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82개국에 세계평화교수협의회가 편성되어 있어서 수만 명의 학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학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원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전문 분야의 계열에서 연구한 것, 세계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즉각 워싱턴타임즈의 <월드 앤 아이> 편집부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잡지를 내가 1985년 12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첨단을 달리는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기고하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첨단 시대에 세계의 석학들을 묶어 방향성을 제시하여 전진하지 않고는 세계가 망합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 어떤 언론인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미국과 법정투쟁을 하는 테이블 위에서 워싱턴타임즈 창간 자금을 결재하였습니다. <인사이트>와 <월드 앤 아이>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살려 주겠다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미국을 책임진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을 보호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비애의 관문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밟고 넘어서기 위한 책임자로서의 사명과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중심존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보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을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지도해야 됩



(위) 워싱턴타임즈 총재의 자격으로 상을 수상하고 계신 참아버님.  
(아래) 참부모님께서 워싱턴타임즈 인쇄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계신 장면.

니다. 자유세계의 수많은 국가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타임즈는 시사 해설을 통해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고, <인사이트>는 매일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백 퍼센트 통계를 내어 발표합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매주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국회의원의 좌익 발언과

국가에 해가 되는 발언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 앤 아이>는 세계 유명 학자들을 중심삼고 분야별로 미래의 방향성을 잡아 주고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을 지도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의 세계로 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은 참부모경 제9편 제2장 3절에서 발췌된 말씀입니다.

# 워싱턴타임즈 창립 40주년 기념 축하메시지

워싱턴타임즈의 기념 이념은 3F로 "Freedom(자유), Family(가정), Faith(신앙)"이다.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을 중심으로 참된 가정을 확립하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모두의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레이건 대통령의 확고한 반대는 1980년대 전 세계에 공산주의의 위협과 침략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폭로한 워싱턴타임즈와 맞물려 있었다. 그 시기를 몸소 경험한 유명인사들은 워싱턴타임즈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댄 버튼 인디애나 전 의원

“워싱턴타임즈만큼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 이슈에 대해 강하고 명확한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워싱턴타임즈는 용감하고 사실적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저 또한 한학자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공동 창설자이자 남편이신 고 문선명 목사님과 함께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진리, 신앙, 자유를 수호하는데 값진 기여를 하셨습니다.”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전하는 것은 사실을 증가시키고 건전한 대중의 토론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언론이 자유사회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언론의 제 역할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대통령

“워싱턴타임즈는 항상 자유로운 국민을 대표할 것입니다.”



# The Washington Times Foundation Inaugural Banquet

April 16, 1996 - Washington, DC



마가렛 대처 전 영국총리

“워싱턴타임즈가 존재하는 한 보수의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첫 임기 이후 워싱턴타임즈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 날의 이슈에 대한 지적인 논쟁을 더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저는 특별히 워싱턴타임즈에 감사를 전합니다. 워싱턴타임즈는 미국과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한 용감한 목소리입니다. 또한 신앙, 가정, 그리고 모두의 자유를 위한 목소리입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원

“워싱턴타임즈는 직설적인 조사와 확실한 보수적 논평, 그리고 자유주의 언론에 대한 건전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

“워싱턴타임즈 창설 40주년은 축하합니다. 자유롭고 열린 언론은 헌법이나 법치와 같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 자유, 가정, 신앙 : 워싱턴타임즈 40주년

탐 맥데빗 워싱턴타임즈 재단 이사장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귀 섭리, 특히 4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워싱턴타임즈의 40주년 기념행사에 함께 하시면서 40년 전 창간 당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워싱턴타임즈의 설립을 통하여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섭리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셨습니다. 1982년 5월 17일 첫 신문 발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워싱턴타임즈는 언론사로서 미국의 건국정신을 되살리고 애국심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편집자분들, 기자분들, 임원분들, 직원분들, 광고주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천만 명의 워싱턴타임즈 독자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지난 40년 동안 함께 이 엄청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워싱턴타임즈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통찰력 있는 언론으로 미국을 선도하는 높은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요즘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지난 2002년 워싱턴타임즈의 20주년 기념식에서의 참아버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전기 동안 하나님은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막으시고 미국을 자유의 수호자로서의 위치에 올리셨습니다. 1981년 워싱턴 스타가 문을 닫았을 때, 이 나라의 수도인 워싱턴에는 오직 워싱턴 포스트라는 단 하나의 신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유진영의 본거지에 서마저도 뉴스나 매체에서 당시 공산주의의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을 간과하고 이슈와 정책에 대한 관점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맥락에서, 미국 국민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계몽할 수 있는 철학적, 이념적 토대를 가진 신문이 필요했습니다. 몇 달 동안 나는 워싱턴 포스트를 보완할 수 있는 신문을 창간하는 애국적인 미국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나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The Washington Times

참아버님은 워싱턴타임즈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와 가정과 신앙의 가치는 미국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적 미덕입니다. 워싱턴타임즈가 ‘미국의 신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신문이 미국의 철학적 전통을 실천에 옮기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의 신문’이라는 말이 워싱턴타임즈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와 모든 인류에게 봉사하는 나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아버님의 성화 10주년을 앞두고 워싱턴타임즈의 공동설립자이신 참어머님의 기념비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워싱턴타임즈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참어머님은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가치와 리더십의 수호자로서 워싱턴타임즈의 세계적인 영향을 강화하고자 하시는 비전을 공유하셨습니다. “워싱턴타임즈의 목적은 미국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미국을 수호할 것인지,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은 국가로서 어떻게 미국이 세계를 위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데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워싱턴타임즈 창간 40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신성한 삶, 운명, 명예를 주신 참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워싱턴타임즈는 “자유, 가정, 신앙 : 워싱턴타임즈 40주년”의 출판판을 시작으로 1년 동안 주요 행사들을 통하여 40주년을 기념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 버전을 읽고, 즐기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는 PDF 버전이며 널리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동설립자이자 미국적인 가치의 지지자로서 워싱턴타임즈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제목의 전체 기사 링크입니다.



## ‘2022 효정 철쭉축제’ 보고

HJ천주천보수련원은 만물이 악동하는 이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고자 ‘2022 효정 철쭉 축제’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혼 62주년을 기념하며 ‘사랑의 즐거움’을 뜻하는 철쭉의 꽃말처럼 수련원에는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축복이 온 천지에 함께하고 있음을 체감하는 때이다.

이번 효정 철쭉축제에는 천일국 10년 천력 3월 20일부터 천력 4월 8일까지 (양력 2022년 4월 27일~ 5월 8일) 12일간 연인원 13,000여 명이 방문하였다. 수련원에 사전 공지되었던 철쭉축제 단체참여로 1지구에서는 중구, 노원, 송파, 천북궁, 관악, 인천, 강남, 동대문, 중랑 등 참석교회 27개, 참석인원 1,200여 명, 새식구 및 평화애원, 평화대사 100명 이상 참여하였다. 4월 30일에는 1지구 서울남부 영등포대교구에서 약 100명의 산수원애국회 회원들이 방문하여 약 1시간 동안 천보교육원 단체교육 후 철쭉축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2지구 오산, 양양, 3지구 천안, 제천, 청주, 옥천, 4지구 영암, 정읍 5지구 대구, 영천 외에 단체로는 선문대학교, 선문대학교 한국어학원생 80명, 6000가정 강원도팀이 있었다. 1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20시까지 부흥마당 철쭉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힐링 체험 프로그램은 천보원 관람, 참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효정레터’, HJ MBT센터 몸·마음 힐링 요가, 한복 무료 대여 서비스, 부흥마당 버스, 비눗방울 놀이 및 사진 공모전, 마술공연 등이 매일 진행되었다.

효정 천보역사 프로그램은 주말과 공휴일(어린이날, 어버이날) 진행되었는데, 효정 천보특별찬양역사, 효정 봉헌예식, 천심원 특별기도실 기도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평일에 방문한 참여자와 새식구 또는 평화대사의 경우 성지순례, 천보원 관람, 천보교육원 교육 후 부흥마당 버스, 헤븐지버거, 효정연, 한원집, 효정카페, 수선화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정이었다.

주말 또는 공휴일에 효정 철쭉축제 참여자들은 HJ천주천보수련원 정문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부흥마당에 도착했다. 천보원 관람 후 한원천운길 및 천승대 순례를 하거나 효정 천보특별찬양역사, 천심원 기도정성 후 부흥마당 버스, 헤븐지버거, 효정연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고 한원집과 효정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 ‘2022 효정 철쭉 축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체험 프로그램

#### 천보원 관람

효정 철쭉축제 기간에 천보원에서는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 축제 참여자들이 천보원 관람을 통해 천보섭리의 역사와 참여머님께서 직접주관하시는 실체성신역사 시대를 돌아볼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총 4개의 관인 참부모님 복귀섭리관, 천보섭리역사관, 신종족메시아관, 천보관을 전체 오픈했다. 가이드는 11시~12시, 14시~15시에 한국어 가이드가 있었고, 13~14시에 일본어 가이드를 제공했다. 그 외에 사전예약한 단체에 가이드를 제공했다. 가이드 시간에 맞추기 어려운 관람객에게는 오디오 가이드를 통한 전시 해설 서비스를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로 제공했다. 천보원을 개방하자 자유관람은 물론 교회 인솔하에 평화대사 및 새식구 방문이 크게 늘었다. 천보원 관람 인원 통계로 철쭉축제 기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간에 강남교회 평화대사 40명, 옥천교회 평화대사 44명,

남원교회 14명 순례 등 총 1,726명의 관람객이 있었다.

#### 참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효정레터’

참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레 편지를 써서 기쁨과 희망을 올려드리는 이벤트인 ‘효정레터’ 이벤트가 철쭉축제 기간 내 진행됐다. 참여방법은 천심원 입구에 비치된 예쁜 편지지에 정성을 담아 참부모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적고, 편지지를 반으로 접어 소속교회, 연락처, 이름을 기재하여 천심원 내부에 있는 효정레터 봉헌함에 넣는 방식이었다. 축제 기간에 총 200여 건의 효정레터가 수집됐다. 대상 1명에게 참부모님 존영, 최우수상 3명에게 말씀 캘리그래피 액자, 우수상 5명에게 부흥백화점 기념품을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 HJ MBT센터 몸·마음 힐링 요가

친화관 6층에 있는 HJ MBT센터에서는 김가연 센터장을 중심으로 4월 30일부터 5월 8일 몸·마음 힐링 요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효정부스에서 선착순으로 표를 배부하여 편안한 복

장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 두 가지로, 첫 번째 프로그램은 효정링과 효정불 프로그램이다. 어깨, 허리, 종아리 등에 끼우는 것만으로 요가 효과를 올리는 도구인 효정링과 독특한 소리와 울림으로 진동의 하모니를 만들어 명상에 사용하는 효정불을 활용하여 식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내적인 성장을 도모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한원 천운길 코스에 있는 몸·마음 돌봄터에서 진행되는 요가 프로그램이었다. 보편적 영성개발 및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 한복 무료 대여 서비스

부흥마당과 친화관 2층 HJ포토스튜디오에서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한복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여 명부를 작성하고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라 1시간 동안 대여하는 서비스다. 마치 한옥마을에 여행 온 것처럼 한복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는 한복체험 서비스는 2030 세대에게 주목을 받았으며, 선문대학교 유학생들과 선학UP대학원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한원집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코스가 가장 인기 있었다.

선학UP대학원대학교 한국어학원생 S.T(2세 축복가정, 여) 식구는 효정 철쭉축제에서 한복체험을 통해 한국문화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하늘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저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천일국의 문화인데,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한국문화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핀 철쭉이 아름다워서 하늘부모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아름다움을 실감했습니다.”



### 부흥마당 부스(먹거리와 다양한 상품 등)

부흥백화점 앞에서는 철쭉동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공간을 제공했다. 효정수로 만드는 부흥커피, 잔치국수, 솜사탕, 아이스크림, 효정농원의 된장과 고추장, 수선화 카페의 수제 빵 그리고 천원교회 협조로 타코야키, 과일 컵 등을 판매했다. 음식 외에도 합성 플라스틱과 고무로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드는 레진아트 작품 판매 및 HJ MBT센터 힐링프로그램 소개 부스를 준비하여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신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부흥백화점 또한 남성/여성의류 이월상품 최대 50% 세일 및 명품 최대 30% 세일 부스를 설치하여 평화대사와 새식구에게 주목을 받았다.

### 비눗방울 놀이 및 사진 공모전, 마술공연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무료로 비눗방울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설치했다.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제공되는 비눗방울 체험 부스에는 성화어린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방문하여 참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린이날 기념 이벤트로 5월 5일부터 8일까지 비눗방울 놀이 사진을 찍어서 수련원 어플 사진 공모전 코너에 게시하는 사진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수상자 발표는 다음 2일 수련 일인 5월 28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마지막 날인 5월 8일에는 부흥마당에서 15시 20분부터 김상오 천보교육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2세 마술사 유키토모 유이치의 멋진 마술 공연이 펼쳐졌다. 한 어린이를 객석 앞으로 초청하여 색 양말을 찾아내는 마술을 시작으로 마치 마법처럼 테이블을 공중에 띄우는 마술을 선보였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감동과 웃음이 넘치는 공연이었다. 객석에 자리한 아이들에게 사회자가 마술공연이 어떠했느냐고 묻자, “재미있고, 신기했다.”라는 대답이 줄을 이었다.







## 천보역사 프로그램

효정 철쭉축제 기간 동안 주말과 공휴일(어린이날, 어버이날)에는 오후 2시부터 천성왕립궁전 대성전에서 효정 천보특별찬양역사를 진행했다. 수련원 직원들이 교대로 사회와 대표보고, 찬양팀을 하였다. 효정 천보특별찬양역사는 총 5회 실시되었으며, 연인원 3,000여 명이 참여했다.

### 효정 봉헌예식

교육국 김주환 한국연수팀장의 사회로 개회선언이 되었고, 문인성 교육국장이 은혜로운 대표보고를 올렸다. 이어서 효정 철쭉 축제에 참석한 식구들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효정봉헌서를 봉헌하였고, 천보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들이 모여 하늘 앞에 상달 될 수 있도록 효정봉헌 감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 효정 천보특별찬양역사

이후 찬양역사팀의 인도로 천보찬양역사가 있었다. 찬양역

사 참여자들은 철쭉축제와 천보역사의 은혜를 통해 천운을 상속받고 실체성령 참여머님과 정오정착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었다. 2지구 경기남부교구 중원교회에서 온 36만 가정 식구는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수련원에 오니 위로가 되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방문했는데요. 집에서도 항상 대역사나 수련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HJ천주천보수련원에 직접 온 덕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해서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련원에 3년 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와서 정말 은혜롭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위로가 돼서 좋았습니다.”

### 천심원 특별기도실 기도회

효정 천보특별찬양역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3시 30분부터 식구들이 천심원 특별기도실로 이동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수련원 및 천심원 직원들이 인솔과 안내를 했다. 그 외 시간에 교회, 기관, 가정 등이 천심원 기도회를 단체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미리 한국접수팀에 연락하여 최대 20명까지 입장하도록 했다. 

# 신일본 제2지구 주최 ‘효정 환영축제 2022’

2022년 5월 5일(목) 어린이날의 공휴일에, 신일본 제2지구 주최 「효정 환영축제 2022」를 실시했다. 이 대회는 제2지구 모든 2세권, 3세권이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께 돌아와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대회로 하자는 마음을 담아 “환영 축제”로 명명했다. 심방 프로젝트의 집대성으로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 대회 준비 속에서 느낀 인도와 심정 체험

올해 1월, 지구회장을 중심으로, 교구 성화부장들이 모여 이 대회의 기획과 정성을 출발시켜 갔습니다. 젊은이에 의한, 젊은이를 위한 대회로 해 주었으면 하는 지구 회장의 소원 아래, 교구 성화 부장들이 하나가 되어, 기획을 진행시켜 왔다.

대회의 내용도, 각 교구의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재능과 지혜를 모아, 로고의 디자인, 공식 LINE을 통한 홍보, 영상, 오리지널 송, 라디오를 상정한 무대를 만들었다.

그 준비를 진행하면서 “모든 2세권·3세권·자녀들을 모두 한 사람이라도 남김

없이 복귀하고 싶으신 부모의 심정”을 체험한 2세들도 많이 있었다. 특히 이번 대회 로고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담긴 디자인이 되었다.

3월에 일어난 큰 지진에 의해, 당초 예정하고 있던 행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건도 있었지만 지진의 영향이 적었던, 센다이 국제센터를 기적적으로 빌릴 수 있어 하늘의 인도하심을 느꼈다. 이번 대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홋카이도와 도호쿠의 2개의 행사장을 중계한 대회인 관계로, 두 행사장의 일정이 맞지 않으면 대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 대회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참부모님의 인도였음을 실감하고 있다.





### 성화부로서 과거 최고의 동원에 도전

행사장의 변경에 의해, 부득이하게 좌석수가 줄어들었지만, 두 개 행사장을 합쳐 2500석이 되어 온라인 참가를 합치면 3000명이 넘게 참가했다. 도호쿠 행사장은 결과적으로 동원 인원수를 110%까지 올릴 수 있었다. 홋카이도 행사장에서도, 2개 교구이면서도, 도호쿠 행사장의 동원 이상의 수를 동원했다. 홋카이도의 성화권 활동으로서는, 과거에 유례없는 동원 결과가 되었다. 동원된 2세권 중에는 140명의 심방·재복귀 대상의 2세권이 있다. 또, 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하면 160명의 심방·재복귀의 2세권이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2세권을 향후 현장에서 연결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지구 주도하에 출발해 나갈 것이다.

### 배형주 제2지구회장 메시지



대회는 배형주 제2지구회장의 메시지로 시작했다. 지구회장 메시지는 자녀의 귀환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에 대해 말했고, 이 대회와 오프닝 메시지에 적합한 내용이었다. 어린

이의 날, 공휴일에 이 대회가 열려 있는 하늘의 인도와 함께,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고, 그 부모가 아이의 걱정을 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누구보다 강하게 가지고 계신 참부모님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내빈 인사

홋카이도와·도호쿠 행사장 아울러 18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의 취지에,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라는 청년들에게의 희망 넘치는 메시지를 전했다.

### 「효정 환영 라디오」 기조 강연 : 모토야마 가즈미치 국장



2세권의 적나라한 체험담이나 메시지를 라디오 방송국을 모방해 선보였다. 지금까지 없는 2세 특유의 기획에 신선함과 함께, 행사장을 방문한 참석자들의 감동의 목소리가 들렸다. 특히, 이번 대회의 기조 강연을 맡아 주신, 모토야마 가즈미치 미래 인재국 국장의

2세들의 고민에 응답하는 코너에서는, 꾸미지 않은 자신의 체험담을 전하며, 매우 친근감이 느껴지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게스트로 참가한, 고교생·대학생·가정 청년·사회인의 2세들의 메시지도, 각각의 고민이나, 갈등을 극복해 왔다고 하는 내용으로, 같은 세대의 2세들과, 나아가 부모의 세대에도 깊은 감명을 주었다.

### 차세대에의 메시지: 기쿠치 가즈히데 이시노마키 가정교회 교회장



제2지구에서 태어나서 성장해, 이번 이시노마키 가정교회 교회장이 된, 2세의 기쿠치 가즈히데 교회장

이, 「차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제로 2세권·3세권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곧바로 신앙을 성장시켜 온 것이 아니라, 2세로서 고민·고난 어린 시절의 내용, 또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에 접해, 신앙의 길을 결의한 내용을 진심으로 전했고, 그 내용이 2세권뿐만 아니라, 부모의 세대 심금을 울려 눈물을 흘리는 분이 많이 보였다.



### 축하공연

센다이 회장·훗카이도 행사장 모두 밴드 연주를 통해 분위기를 북돋웠다. 센다이 회장은 댄스를, 젊은이다운 분위기로, 지금까지의 대회에 없는 젊은이 중심의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훗카이도 행사장은 오리지널 송 ‘마유목’을 선보였다. 이 노래는, 참여머님이 말씀하신 모자의 나무 「마유목」을 테마로, 훗카이도 2세에 의한 오리지널 송이다. 어머니에 대한 효정을 노래한 이 노래는, 회장에 방문한 형제자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 종이학의 봉헌, 꿈 봉헌

이 날을 위해 제2지구의 2세권 중심에 한 마리 한 마리에 소원을 담아 1만 마리의 종이학을 봉헌했다. 이 학에는 한 장 한 장에 뜻과 하늘에 대한 소원과 결의가 적혀 있습니다. 탑건 대학생이 전체를 대표해, 종이학을 참여머님께 봉헌했다. 그 후, 각각의 뜻을 “꿈 봉헌”으로 하늘에 맹세했다. 전체가 일어나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 효정의 심정을 바치는 시간이 되었다.

### 가족사진 콘테스트

대회에 앞서 가족사진을 모집하고 대회 마지막에 상을 결정 발표했다. 상을 수상한 사진을 비롯해, 어느 사진도 가족사랑 넘치는 작품이 모였다. 가족사진 콘테스트 모집에 전해진 모든 사진을 영상으로 엮어 전체로 시청을 했다.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 참부모님의 부모의 심정에 잠기며 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 대회 전체에 대한 소감



2세들도 모두 여러 가지 내용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찾아온 것을 알고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모두, 각각 고통 느끼면서, 찾아 얻은 것이었던 일. 오늘, 증거 해주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승리한 분들이었고, 그 분들의 말에서는, 부모의 사랑이나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고 들었을 때, 우리 집에서도, 2세가 있지만,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생각했을 때,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인 나의 사랑의 부족, 기도의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교회에 연결되지 않았는지 명확한 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귀한 2세를 자신의 자녀도 그렇습니다만, 함께 걷는 형제자매의 2세들도 모두 하나님의 곁으로 돌려보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축제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오늘 오지 못했던 2세들이 증인으로 단상에 설 수 있도록 앞으로 부모로서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활기 넘치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희망을 느꼈습니다. 센다이와 삿포로를 연결한 내용도 획기적이고 매우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지구가 일체가 되어, 다른 교구의 형제자매를 알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교구에서도 이번 행사를 통해 처음 만날 수 있었던 형제자매도 있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고, 같은 것을 볼 수 있었던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잘 소중히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늘부모님의 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잘 깨달아 가고 싶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번 대회는 오랜만에 교회에 오는 자녀들이 참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잘 돌아왔다고 하는 심정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제 자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날도 있었지만, 무사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①



②



③

1 도호쿠 행사장 효정환영 라디오 진행자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2 문화공연의 한 장면.

3 종이학 봉헌 후, 꿈 봉헌을 위해 맹세하고 있다.

4 도호쿠 행사장에서 진행도니 효정환영 라디오에서 모토야마 가츠미치 국장의 기조 강연을 마치고, 다같이 손을 흔들고 있다.



④



⑤



⑥



⑦



⑧

5 꿈 봉헌 결의를 위해 단상에 오른 탐견 대학생 대표자들.

6 홋카이도 행사장 효정환영 라디오 진행자들의 모습.

7 홋카이도 행사장에서 효정 환영 라디오 코너에서 게스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8 홋카이도 행사장 참가자들이 모두 나와 손을 흔들고 있다.



#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효정청소년오케스트라 봄 콘서트

지휘자 데이비드 이튼

제가 2016년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처음 한국으로 왔을 때 참여머님께서는 평화의 문화 정착이라는 하늘부모님의 이상을 알리는 것으로 음악과 문화를 활용하려는 문효진님의 비전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동서양 조화의 중요성과 제가 이 곳에 있는 것이 어떻게 두 문화 사이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5월 22일 효정청소년오케스트라 봄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예술이 통일과 조화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참여머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희망전진대회에서 참여머님께서는 세계평화예술인연합(IAACP)을 설립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유럽의 예술적 표현과 고전적 전통이 기독교 문화의 일부이며 이 전통이 효정 문화에서 예술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견해를 공유하셨습니다. 참여머님께서는 유럽의 예술 문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와 하늘 부모님의 이상세계의 여명을 기초한 영광스러운 표현이라고 암시하셨습니다.

“과거 기독교문화권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로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고전의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는 메시아를 그리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6천 년간 참고 기다려오신 우리의 하늘부모님을 그리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타락으로 불효했던 인류가 부모님 앞에 드리는 사랑과 기쁨의, 송영의 아름다운 예술이 심



정문화혁명으로 길이길이 빛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술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빠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제3회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대회 말씀, 2020. 11. 22. 청심평화월드센터)

효정청소년오케스트라는 서양 음악 양상블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참여머님께서 언급하신 동서화합을 알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중동, 라틴 문화가 어떻게 서양의 교향곡의 전통을 받아들였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에는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있으며 이집트에는 세계적인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아시아, 이스라엘, 남미 등지에서 다양한 양상블과 함께 콘서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유능하고 열정적인 비(非)서방의 뮤지션들과의 작업은 늘 즐거웠습니다.

2018년 효정청소년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허설 몇 달 만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가평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여러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온라인 음악 수업을 계속 진행했고 다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22일 하늘부모님성회 평화누리 문화공연의 일환으로 열린 우리의 콘서트는 2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린 첫 번째 공개 콘서트였습니다. 코로나19 전에 교사진들은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3시간씩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주일에 10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음악가들을 위한 이들의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콘서트 전, 학생들은 긴장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2년 넘게 준비한 곡들이 많아서 그런 듯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제가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한 곡인무도 마치, 드럼 잼(즉흥연주곡)과 2020년 참여머님께서 한국어 학습 교재로 요청하신 동요 CD를 위해 작곡한 4곡(아름다운 이 세상, 하늘 신부, 어머니 손은 약손, 수선화 사랑)을 선보였습니다.

가수 우아한이 이 곡들을 녹음했고, 이번 콘서트에 그녀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2019년 남미에 있을 때 작곡한 그녀의 원곡 중 하나인 'Gritare(소리쳐)'를 공연했습니다. 이 곡은 라틴 리듬과 멜로디로 구성되어 신나는 노래와 가슴 벅찬 연기로 관객들은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효진님과 맨하튼 센터에서 여러 번 일을 했는데 효진님은 영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것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효진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저는 유명한 영화인 '캐리비안의 해적'의 주제곡을 편곡했습니다.

효정청소년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현재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으며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기타, 트럼펫, 타악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설악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음악 예술을 통해 하늘부모님 성회 공동체의 이상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년 4회의 콘서트를 열어 리틀엔젤스와 같은 중요한 문화기관으로 오케스트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50년 이상 음악가로 활동해왔고 음악이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통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음악가, 예술가들은 명예와 부를 향한 욕망에서 물질에 유혹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이상은 예술가들이 지내고 일하는 공동체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자, 플라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음악과 예술이 도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우리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중심 이슈로 다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같습니다.

참여머님과 윤영호 효정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선생님들과 스태프뿐만 아니라 모두의 리더십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지지와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효정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을 보여주신 학생,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케스트라 창단 때부터 함께 해온 조민진, 안젤리카 버드송(바이올린), 최여진(비올라), 이혜경(첼로), 스즈키 준코(클라리넷), 기타오타 쿠미코와 와타베 미치코(플루트), 하노타 슈지와 요코타 히로유키(기타), 곽윤건(타악기), 한지열(트럼펫)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려운 시간 동안 헌신하고 성원을 보내 준 장연희 팀장과 구보 에리코 교육담당자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참여머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감사함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열쇠라는 것을 일깨워주셨고 저희는 감사의 마음으로 계속 준비하여 이번 콘서트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교수진들이 매우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는 효정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결의와 헌신의 증거입니다. 



## 분단 최초 ‘휴전선 DMZ 횡단 승마 피스로드’ 완주

“휴전선을 따라 국토를 횡단하면서 분단의 아픔을 절절하게 체험했지만, 한편으로 그 비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겹쳐지면서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무겁게 다가왔다.”

2022년 4월 27일 휴전선 서쪽 끝 강화도 마니산 자락에서 14박 15일 일정의 ‘휴전선 DMZ 동서횡단 피스로드 승마 카라반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백재현 원정대장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뼈저리게 느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

렇게 회고했다.

‘피스로드 승마 원정’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회장 송광석)이 국내 처음으로 국제승마콘텐츠진흥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4명의 원정대원들은 2022년 4월 13일 휴전선 동쪽 끝 강원도 고성군 명파 해변에서 출발해 휴전선 서쪽 끝 강화까지 말을 타고 달리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대원들이 횡단한 길은 행전안전부가 조성한 ‘통일을 여는 길’(일명 평화누리길)로 명명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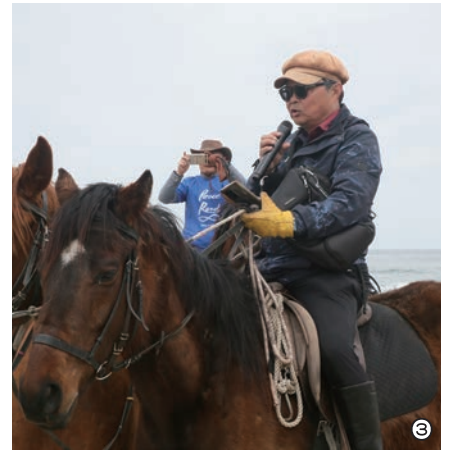
456Km의 긴 여정이었다.

백 대장과 변영기, 이용규, 정재길 대원 등 4명의 기수로 구성된 피스로드 승마 원정대는 진부령을 넘어 양구, 화천, 철원, 연천, 파주, 김포 등을 지나며 모레길, 자갈길, 들판길, 물길 등 다양한 길을 힘차게 헤쳐 나왔다. 중간에 지역 승마동호회에서 일부구간을 동참하기도 했으며, 파주에서는 현악 4중주 평화음악단이 통일음악회도 열어줘 알찬 원정이 되었다. 대원들 모두 심신이 지쳤을 터이지



①





- 1 2022년 4월 27일, 세계최초 DMZ 동서횡단 승마 피스로드 종주완료식 기념사진.
- 2 14박 15일 종주를 함께 한 4명의 원정대원과 5마리의 말.
- 3 백재현 원정대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는 장면.
- 4 종주식을 위해 말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원정대원들.
- 5 송광석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이 원정대원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장면.

만, 모두 입가에 환하게 미소 지었고, 말도 건강해 보였다. 대원들은 동해물을 서해 물과 합치는 합수식을 갖고 통일을 염원했다.

마니산 자락에서 열린 종주완료식에는 김미희 국민연합 이천지회장, 국민연합 경기강화지역 회원, 재한외국인회 회원,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송광석 회장은 승마

원정대원들에게 종주완료기념 감사패와 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송광석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듯이 한반도 통일의 길과 평화의 길을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놓자”고 강조했다.

국민연합은 올해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10회째 기념행사로 ‘DMZ 동서횡단 승마 원정’ 프로젝트를 마련했으며, 오는

6월부터 8월말까지 계속되는 통일대장정은 미국, 일본 등 세계 160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국토종단 자전거 종주, 동서독 접경지 그뤼네스반트 자전거 종주(7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 기원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기도승마협회, 경기도 말산업협동조합, 평화생명동산 등이 후원했다. 



